

고려 태조대 북방 개척과 鎭頭 파견

이 정 기*

1. 머리말
2. 태조대 북방개척과 진두의 역할
3. 진두 파견의 특징과 의미
4. 맺음말

1. 머리말

태조 왕건은 고려를 건국한 후 국가의 기틀을 세우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특히 북방개척을 진행하면서 북진정책을 통해 고구려가 통치했던 영토를 계승하고자 하는 의식을 표출하였고, 나아가來投해 오는 발해 유민과 여진족을 포용하는 동시에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고 정국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태조의 북진정책은 명분적일 뿐만 아니라 고려 영토의 확장이라는 실질적인 측면이 강했다.¹⁾ 이는 태조는 물론이고 고려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 1) 북진정책에 대한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해당 연구의 인용쪽수는 후발표지에 의거함).
이기백, 「고려의 북진정책과 鎭城」, 『동양학』7, 1977; 『군사』 창간호, 1980.
강성문, 「고려초기의 북계개척에 대한 연구」, 『백산학보』 27, 1983.
방동인, 「고려전기 북진정책의 추이」, 『영토문제연구』2, 1985; 『한국의 국경확정연구』, 일조각, 1997.

의 국경이 확정되는 시점²⁾까지 양계지역이 중요하게 관리되었던 배경이기도 하다.³⁾ 이처럼 고려의 북방개척은 태조의 북진정책에 의해 이루어진 괘목할 만한 성과이다. 또한 태조는 북진을 통해 확장된 영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방어를 위한 성을 쌓고 백성들을 그 지역으로 이주시킨 후 이들이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였다. 태조가 양계에서 북진과 더불어 시행한 다양한 사업들을 통틀어 북방정책이라 부르기로 하겠다.

태조는 북방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일들을 담당할 만한 인물을 선택하여 보내는데, 이들이 바로 진두(鎭頭)이다. 진두에 대한 연구는 태조의 북진정책이나 태조대 진의 설치를 비롯한 군사운영과 함께 간단히 언급하는 정도로만 다루고 있다. 이는 진두에 대한 기록이 매우 소략하고 진두로 파견된 인물에 대해 추측할 만한 단서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진두에 대한 선행연구는 필자에게 매우 고무적이다. 이기백은 태조대 북진의 설치에 관한 사례 검토를 통해 築城과 設鎭 이후의 조치로 鎭戍와 徙民의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들 진의 長으로 鎭頭를 설정하였다. 더불어 신라의 패강진의 長이었던 頭上大監의 존재를 통해 某鎭頭上에서 鎭頭가 기원한 것이라 추측하였다.⁴⁾ 내용이 성글지만 진두 칭호에 대한 기원과 진의 長인 진두를 언급한 최초의 연구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변태섭은 이보다 좀 더 상세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고려초 군사적

2) 고려의 북방지역 국경은 통일신라의 대동강을 지나 태조대의 청천강의 완전 확보, 그리고 성종대 鴨綠江口까지 이르러 완성되었다(강성문, 앞의 논문, 1983; 방동인, 앞의 책, 1997; 송용덕, 「고려전기 국경지역의 주진성편제」, 『한국사론』 51, 서울대, 2005).

3) 국경은 한 국가의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로 다른 국가와의 경계선을 의미한다. 고려도 '國境'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는 했으나 이보다 '邊境'이라는 용어가 훨씬 많으며 이밖에 '邊邑·郡' '北鄙' 등의 다양한 용어가 확인된다. 이러한 용어들은 모두 국경을 의미하며, 특히 고려의 국경은 경계선적인 의미보다는 일정한 지역 범위를 지칭하였다. 한반도의 특성상 국경은 이북에만 존재하였으므로, 국경은 물론 양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 글은 태조대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양계가 편제되기 이전이지만, 이후 시기와의 단절된 인식을 지양하기 위해 양계라는 표현을 썼으나 태조대의 경우에는 북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고려의 국경인식에 대해서는 송용덕, 앞의 논문, 2005, 85~92쪽 참고.

4) 이기백, 「고려 태조 時의 鎭」, 『역사학보』 10, 1958; 『고려병제사연구』, 일조각, 1968, 재수록, 235~238쪽(이후 인용쪽수는 단행본에 한함).

거점인 諸鎭에 진두를 파견하였으며 이들은 이후의 진사(鎭使)나 진장(鎭將)과 같은 행정적 수령이 아닌 군사적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하였다. 諸鎭이 행정조직으로 전환하면서 진두도 진사나 진장으로 개편되어 갔다고 주장하였다.⁵⁾ 조인성은 진두가 중앙군에서 파견되어 鎭戍를 맡고 있었고 진의 설치와 함께 이루어진 徙民을 관리하기 위해 諸鎭의 행정을 맡았을 것이지만 역시 국방의 임무가 더 중요하였다고 하였다.⁶⁾ 이밖에 이러한 연구에 도움을 받아 진두는 사민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민의 정착과 안정을 위해 파견되었고 鎭戍뿐만 아니라 민사행정 업무도 담당하였다는 소견이 있으나⁷⁾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태조의 북진으로 대표되는 북방개척과 그 과정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파견된 진두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태조대 諸鎭에 진두가 파견되었다'는 정도의 기존 연구에서 벗어나 진두의 파견시기, 파견지역, 파견인물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태조대 진두의 실체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2. 태조대 북방개척과 진두의 역할

태조는 고려를 건국하기 이전부터 변경의 일(邊事)에 대해 상당한 조예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태봉시기 궁예의 변경관리에 대한 물음에 변경을 안정시키고 국경을 개척할 방책(安邊拓境之策)을 제시하였는데, 좌우의 사람들이 눈여겨 볼 정도로 탁월한 계책이었던 듯하다.⁸⁾ 이후 태조는 고려를 건국하자마자 蕃人들의 邊邑침략에 대비하기 위해 황폐화되었던 고

5) 변태섭, 「고려양계의 지배조직」, 『고려정치제도사연구』, 1971, 196~197쪽.

6) 조인성, 「고려 양계의 국방체제」, 『고려군제사』, 육군본부, 1983, 135~138쪽.

7) 이정기, 「고려시기 양계 병마사의 성립과 기능」, 『한국중세사연구』24, 2008, 145쪽.

8) 『고려사』 권1, 태조1, 天復三年(903), “是歲良州帥金忍訓告急裔令太祖往救, 及還裔問邊事太祖陳安邊拓境之策左右皆屬目裔亦奇之進階爲關傑.”

구려의 옛 수도인 평양을 정비하여 백성을 이주시키고 藩屏을 굳게 하고 평양을 대도호(大都護)로 삼았다.⁹⁾ 태봉(泰封)의 북쪽 경계가 청천강까지였으나¹⁰⁾ 그 이남 지역인 평양도 황폐화되어 고려 건국 후에도 邊扞의 침략이 잦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아마도 평양에서 청천강까지의 영역은 실제적인 국경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던 듯하다. 따라서 태조가 건국과 동시에 폐허가 된 평양을 정비하고 백성을 옮겨 정착케 한 일은 실질적인 국토회복과 북방개척의 첫 단계를 밟은 중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알려진 대로 평양을 중심으로 한 북방개척은 옛 고구려 땅을 회복하고자 했던 태조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다.¹¹⁾

태조가 국초에 가졌던 북방개척의 의지는 재위 기간 내내 끊임없이 북계를 순행하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구나 발해가 멸망한 이후에는 이러한 의지가 더욱 강하여져서 옛 고구려 땅을 회복할 마음을 굳혔고 역시 그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서경¹²⁾이 담당하였다. 이는 태조가 북계를 순행할 때 이전과는 달리 먼저 서경에 간 후 주변 주진을 둘러보는 형세를 띠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¹³⁾ 이러한 태조의 북계 순행은 구체적인 사업으로 진행되어 가는데, 이것이 곧 축성과 설진이다.

다음 <표 1>은 태조의 재위기간 동안 북방지역에서 일어났던 일 중 북계

9) 『고려사』 권1, 태조 원년 9월 丙申.

10) 방동인, 앞의 책, 1997. 『海東繹史續』 권10, 地理考, 高麗1, 西北界沿革, “西北界考 今平安道也 …… 大氏之衰 弓裔始取溟西十三鎮 及高麗興 因弓裔舊疆 以安北府爲界 清川江以北爲女眞所據 後入高麗.”

11) 『고려사』 권2, 태조2, 태조 26년 李齊賢贊, “我太祖卽位之後 金博未賓甄萱未虜而屢幸西都親巡北鄙 其意亦以東明舊壤爲吾家青甌必席卷而有之 豈止操雞搏鴨而已哉.” 고려가 북방 개척을 위해 그 전진기지로써 평양(서경)을 부각하여 이를 중심으로 개척을 추진하였으며, 이 지역에 도호부를 설치하여 거점으로 인식하였다는 지적은 이미 있었다(신안식, 「고려 전기의 북방정책과 성곽체제」, 『역사교육』 89, 2004; 윤경진, 「고려 태조대 도호부 설치의 추이와 운영」, 『군사』 64, 2007).

12) 『고려사』 권58, 지리3, 西京留守官, “太祖元年 以平壤荒廢量徙塩白黃海鳳諸州民以實之爲大都護府尋爲西京.”라 하여 태조 원년에 평양을 정비한 후 얼마 후 서경이 되었다고 하였다. 서경은 태조 4년에 처음 보인다.

13) <표 1>에서 北界 巡行을 정리한 부분을 보면, 태조 9, 12, 14, 17, 18년에 태조가 친히 서경에 행차한 후 주변 주진을 순행하였다고 하였다.

순행, 축성, 진두의 파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며, 이것들은 태조가 북방에 쏟았던 열정의 산물들이라 하겠다.

〈표 1〉 태조대 북방개척과 관련한 巡行·築城·鎭頭파견

재위년	北界 巡行 ¹⁴⁾	築城 ¹⁵⁾	鎭頭 파견
2년		龍岡縣/平壤	
3년	是歲 巡幸北界	咸從/安北城/鶻巖	
4년	九月己亥 遣郎中撰行往巡邊郡存撫百姓 十月壬申 幸西京	雲南縣	
5년	是歲...幸西京新置官府吏始築在城	西京在城	
8년	三月 幸西京 王巡北界移築鎭國城(城堡條)	成州	
9년	十二月癸未 幸西京親行齋祭巡歷州鎭 ¹⁶⁾		
11년	是歲 王巡北界移築鎭國城(鎭戍條) 是歲 巡幸北界	安北府/鎭國城	安北府/通德鎭(肅州)
12년	九月乙巳 幸西京歷巡州鎭	安定鎭/永清鎭/安水鎭/興德鎭	安定鎭/安水鎭/興德鎭
13년	五月壬辰 幸西京 六月庚子 至自西京	馬山/安北府	馬山
14년	十一月辛亥 幸西京親行齋祭歷巡州鎭		剛德鎭(成州)
15년	七月 遣正胤武巡北邊		
17년	一月甲辰 幸西京歷巡北鎭	連州/通海鎭	通海鎭
18년	九月甲午 幸西京歷巡黃海州	肅州	
20년		順州	
21년		永清縣/陽岳鎭/西京羅城/龍岡/平原	
22년		肅州/大安州	
23년		殷州城	

〈표 1〉에 정리한 것처럼 태조는 북계를 순행하면서 성을 쌓고 진을 설치하는 것을 통해 1차적으로는 새로운 영역의 확보와 방어에 힘을 기울였다. 특히, 태조는 고려를 건국한 후 황폐화된 평양을 재정비하고 그 이듬해에

14) 『고려사』 권1·2, 태조1·2에서 태조의 북계 순행 기록을 정리한 것이다. 출전이 「세가」가 아닌 경우에만 ()에 출전을 표기하였다.
 15) 최종석, 「고려시대 '治所城'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7, 248~250쪽 〈부표 1〉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16) 고려시대 양계지역은 태조대의 북진정책으로 인해 이미 남도(5도)와 분리되었는데, 지방 행정단위로도 남도의 '州縣'과 달리 양계는 '州鎭'이라 칭하였다(이기백, 「고려 양계의 주진군」, 앞의 책, 1968, 240~243쪽). 곧 주진을 순행하였다는 것은 양계지역을 순행하였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평양에 성을 쌓았으며 통일을 완수하는 태조 18년까지 거의 매년 친히 서경에 행차하였다. 서경을 거점으로 한 북방개척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는 또한 축성의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려는 태조 즉위 초부터 북방지역, 특히 서북 방면으로 꾸준히 축성을 진행하면서 진을 설치해 나갔다.¹⁷⁾ 이는 물론 고려의 영토 확장 과정이며 태조의 북방개척이 표명되는 실체이다. 태조대 북방지역의 축성은 축성되는 순서에서 특별한 규칙성을 발견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동강의 서경과 청천강의 안북부를 기본 축으로 하여 이 축을 중심으로 한 주변부에, 특히 서경을 거점으로 하여 비교적 빠르게 축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¹⁸⁾ 따라서 축성된 지역은 대동강 이북에서 청천강 이남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¹⁹⁾ 진을 설치하는 방법에는 독립된 성을 국가 군대의 주둔지인 진으로 개편하는 경우와 새로운 성을 쌓은 후 진을 설치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²⁰⁾ 어쨌든 築城과 진의 설치는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諸鎭뿐만 아니라 諸州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데 <표 1>의 축성 사례를 보면, 동일한 지역에 복수의 축성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다. 이는 평양이나 안북의 축성처럼 해당 지역의 위상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축성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지만, 성의 증축이나 수리도 포함하는 것이 아닐까 한

17) 고려시기 양계지역의 축성은 총 149건이며, 이중 태조대에 축성된 사례가 29건으로 전체의 1/5을 차지한다. 또한 태조대 전체 축성 사례가 35건이므로 80%가 양계지역에 축성된 셈이며, 모두 서북면에 속한다. 양계지역의 축성건수는 최종석, 앞의 논문, <부표 1>에서 計數한 것임.

18) 윤경진은 일반적으로 축성을 통한 영토 확장은 두 가지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기존 영역에서 가까운 곳에 거점을 확보한 후 특정 방향으로 축성을 진행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먼저 깊이 진출하여 거점을 확보한 후 그 사이에 추가로 축성하여 영역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중 태조대의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영토 개척 과정을 반영한 전자의 형식을 띠었다고 판단하였다(윤경진, 『고려 태조-광종대 북방개척과 州鎭 설치』, 『규장각』37, 2010, 254쪽). 그러나 청천강의 안북에 태조 3년에 이미 성을 쌓았다는 기록(『고려사절요』 권1, 태조 3년 9월)이 있으므로, 앞서 제시된 두 가지 형태가 모두 어느 정도 활용되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윤경진의 이 주장은 태조 3년에 축성한 안북을 골암성, 곧 성주에 비정하였기 때문이다.

19) 태조대 축성 지역과 시기는 다음 장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 이기백, 앞의 책, 1968, 236~237쪽.

다.²¹⁾ 따라서 이런 경우 처음 축성이 이루어졌을 때에 진이 설치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겠다.

이처럼 태조대 북방개척은 서경을 거점으로 하여 북쪽 방면으로 진행되었는데, 북계 순행과 축성, 진의 설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표 1>에서 보면 후삼국통일이 마무리되는 태조 18년 이후에는 태조의 북계 순행도, 진두의 倂呑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통일 이후 축성은 9건의 사례가 있는데, 이를 검토해 본 결과 이 중 順州·陽岳鎭의 2건을 제외하고 永淸縣·西京·龍岡·平原·肅州·大安州·殷州는 모두 이미 이전에 축성되었다. 태조는 후삼국통일을 성취한 동시에 북방을 개척하던 이전의 노력들을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태조에게 북방개척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

고려를 건국한 후 태조에게 가장 시급한 사안은 수도를 정비하고 후백제와의 전투에서 수도를 방어하여 국위를 보존하는 데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태조 2년 송악(松嶽)에 수도를 정하고 그 해 10월에 평양에 성을 쌓은 것은 수도 개경을 방어하기 위함이었다.²²⁾ 이미 평양 축성을 위해 건국하자마자 폐허로 변한 평양을 재정비하였다. 앞서 <표 1>을 통해 설명한 대로 매년 평양을 순행한 것이나 평양과 안북부를 중심으로 축성이 이루어진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조가 끊임없이 북방개척에 관심을 보이면서 북계로의 순행과 축성을 단행한 이유는 후백제와의 전쟁에서 승산이 없을 경우 최후의 보루로 북계를 염두에 두었기 때

21) 고려의 鎭城은 낮은 산과 평지를 함께 연결하여 쌓은 성이었다(이기백, 앞의 논문, 1980, 53~54쪽). 태조가 주진을 순행하면서 城柵을 수리하고 완성하는 데에〔修完〕백성들의 勞役에 힘쓰고 있다는 기록이 있다. 이 글의 각주 29)에서 해당 기록을 참고할 수 있다. 이처럼 동일한 지역에 중복된 축성을 오류로 판단하기에는 그러한 사례가 많을 뿐더러 축성시기의 차이에서 어떠한 규칙성을 발견할 수 없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2) 신안식은 양계의 성곽체계가 서경을 중심으로 수도 개경을 방어하는 것이 최우선이었다고 하였다(신안식, 「고려시대 양계의 성곽과 그 특징」, 『군사』 66, 2008, 8쪽). 서경 개척은 수도 개경을 방어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서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양계의 성곽체제도 기본적으로는 수도 방어에 목적이 있는 것은 맞다. 대신 통일전쟁기에 이루어졌던 축성은 다른 의미들을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이며, 더 나아가 최종적으로 통일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고려의 영토와 백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을 것이다.²³⁾ 비록 통일 후에도 축성은 계속 되지만 이 또한 모두 청천강 이남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도 태조대 북방개척이 계속적인 북진을 위한 조치가 아니었다는 하나의 반증이 된다.²⁴⁾

그러므로 태조의 북방개척은 1차적으로 새로운 영역의 확보와 방어에 목적이 있었지만, 확보된 영역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했을 것이다. 북계의 축성 지역은 국경의 방어를 목적으로 한 지역거점이며, 백성들의 거주지이기도 하였다.²⁵⁾ 곧 북계의 새로운 州鎮에 축성이 이루어지면 백성을 이주시키고, 이주된 백성들이 토지를 경작하고 정착하면서 鎮城을 지키는 둔전군(屯田軍)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²⁶⁾ 이는 태조 자신이 직접 백성들이 살 곳을 정하여 이주시키거나²⁷⁾ 자신들의 측근을 보내 백성들을 이주시키고 편히 살도록 지시하는²⁸⁾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태조는 그 지역에 백성들을 옮겨 안정된 삶을 꾸려나가도록 힘썼으며, 이를 통해 북방개척을 위한 안정적인 물적·인적자원의 보급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태조대 「取民有度」라고 일컬어지는

23) 발해의 멸망으로 발해유민과 蕃人の 유입과 來投를 받아들인 것도 백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생각해볼 수 있다. 태조가 北蕃人은 人面獸心이라 이익을 보면 수치심도 있다고 혹평하면서도 주진성 바깥에 그들을 접대할 館을 세우도록 조서를 내리기도 하였는데(『고려사』 권2, 태조 14년), 이 또한 위와 같은 생각에서 나온 조치라 생각된다.

24) 이정신은 태조대 鎮들이 모두 청천강 이남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북진은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였다고 평가하였다(이정신, 『고려 태조의 건국이념의 형성과 국내의 정세』, 『한국사연구』118, 2002, 51쪽).

25) 송용덕도 민호의 이주와 행정구역의 편성작업 등이 州鎮城 축조와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주진성은 행정의 기초이자 방어의 거점 기능을 하고 城內에서 백성들이 생활하는 거주지로서의 기능까지 담당하였다고 하였다(송용덕, 앞의 논문, 87~94쪽).

26) 이기백, 앞의 논문, 1980, 53~57쪽. 실제로 양계지역의 조세는 京倉에 납부하지 않고 해당 지역 군수에 충당하였으므로, 이 지역에는 屯田의 설치가 보편화되어 있었다. 둔전은 신개척지에 군대가 주둔하여 설치되었으므로 방수군이나 주진군을 동원하여 경작되었으며, 徙民이 이루어지면 그들에게 둔전 경작의 책임이 있었고 이들을 둔전군으로 불렀다(안병우, 『고려전기의 재정구조』, 2002, 168~180쪽).

27) 『고려사』 권1, 태조 5년, “親定牙善城民居.”

28) 『고려사』 권1, 태조 1년 9월, 김창겸, 「고려 태조대 유이민정책의 성격」, 『국사관논총』 35, 1992, 209~211쪽에는 태조가 대민정책의 일환으로 유이민들을 이주시키고 안집케 하는 사안을 정리하고 있는데, 양계의 사례는 아니지만 참고할 수 있다.

여러 조치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태조는 통일전쟁이 막바지에 접어들던 태조 17년(934) 5월에 예산진(禮山鎭)에 행차하여 조서를 내렸는데, 같은 해 정월에도 북진을 순행하였다. 이 조서에서 태조는 백성들을 勞役시키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면서 자신이 巡省하고 城柵을 修完하는 것이 모두 백성들을 위함이라고 토로하였다.²⁹⁾ 이처럼 태조는 건국 후 한동안 주진을 순행하면서 축성에 매진하였는데, 축성은 상당한 물적·인적 자원이 동원되어야 하므로 백성들에 의한 勞役이 상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성을 수리하거나 새로이 쌓기 위해서는 역 징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했다. 또한 태조는 고려를 건국하자마자 泰封主가 시행하던 조세가 합리적이지 않아 백성들이 流亡하게 되니 조세의 부과는 천하통법(天下通法)을 恒例로 삼자거나³⁰⁾ 백성들에게 農桑을 권하며 3년 동안 조세와 역을 면제하여주라는 파격적인 조서를 반포하기도 하였다.³¹⁾

태조의 북방개척이 끊임없는 북진으로 인한 영토 확장에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확보한 영역의 안정적인 관리와 유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담당할 외관 倂 倂이 절실하였을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당시의 외관을 관할 지역에 상주하는 외관으로 보기 어렵더라도 이들을 통해 백성들의 이주와 그들의 지속적인 거주, 역 징발과 국경의 방어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기존에 존재하던 성에든, 새로 쌓은 성에든 주진을 설치하였다면 군사적인 방어와 민의 안정을 위해 외관을 倂 倂하는 것은 당연한 순서이다. 진두의 倂 倂이 축성과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29) 『고려사』 권2, 태조 17년 5월 乙巳, “朕承其危緒造此新邦 勞役瘡痍之民豈予意哉 但草昧之時事不獲已 櫛風沐雨巡省州鎭修完城柵欲令赤子得免綠林之難 由是男盡從戎婦猶在役 不忍勞苦或逃匿山林或號訴官府者不知幾許.”

30) 『고려사절요』 권1, 태조 1년 7월, “秋七月 詔曰 泰封主以民從欲 惟事聚斂不遵舊制 一頃之田租稅六碩 置驛之戶 賦絲三束 遂使百姓輟耕廢織 流亡相繼 自今租稅征賦 宜用天下通法以爲恒例”. 이 사료에서 ‘天下通法’은 什一, 곧 1/10稅를 의미하는데 고려 건국 직후부터 1/10조가 시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시에 10분의 1세가 제대로 시행되었을지는 의문이다. 조세율에 대한 연구는 박종진, 『고려시기 재정운영과 조세제도』, 2000, 84~92쪽을 참고.

31) 『고려사절요』 권1, 태조 1년 8월, “然承圯運 苟不蠲租稅勸農桑 何以臻家給人足乎 其免民三年租役 流離四方者歸田里 仍大赦與之休息.”

태조의 북방개척이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기 때문에 태조가 파견한 진두에게도 새로운 영토의 개척과 방어라는 군사적인 부분과 안정된 영토와 백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민정적인 부분으로의 임무가 주어졌을 것이다. 바로 이 점이 중앙에서 국초 북방의 諸州鎮에 진두를 파견한 배경이라 할 수 있겠다. 태조는 진두를 통해 성공적인 북방개척과 안정적인 영토 확보를 이루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후삼국 통일에 큰 보탬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순행·축성·설진으로 이어졌던 북방으로의 관심들이 태조 23년 지역 편제라는 큰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³²⁾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진두의 구체적인 성격과 의미를 검토하겠다.

3. 진두 파견의 특징과 의미

평양을 중심으로 한 북방개척의 시도가 성공하면서 태조는 동왕 14년(931)에 안북부(安北府)를 설치하였는데, 이는 그동안 평양과 안북성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축성 사업에서 안북성의 역할을 인정하고 위상을 높여 주는 결과였다. 태조는 즉위 이후 후삼국 통일 이전까지 거의 매년 친히 국경을 순행하였다. 특히 태조 재위기간 중 원년의 평양대도호부와 14년의 안북부 설치 사이에 이루어진 영토와 백성의 안정적인 확보는 이 시기 평양과 안북부 사이 주요 진에 파견된 진두에 기댄 바가 크다. 곧 진두의 파견은 통일전쟁의 최후 보루로, 혹은 고려의 최종 영토로 마련될 북방개척이라는 대전제 속에서 진행되었을 것이며, 이는 군사적인 측면 이외의 상황까지 해결되어야 가능한 것이었다.

32) 태조의 북방정책을 보다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점진적인 군현 편제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태조 23년의 읍호개정으로 나타난다. 읍호개정은 단순히 군현의 이름만 바꾸는 정도의 개편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연구되었으며, 양계도 태조대에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改名된 사례가 보인다(이정기, 앞의 논문, 142~143쪽). 지방제도의 편제는 기본적으로 중앙집권화에 목적이 있는데, 곧 지리적인 지역재편과 더불어 외관 파견을 통해 최대의 효과를 양산할 수 있다.

다음 <표 2>는 진두가 파견된 시기와 지역, 축성에 참여한 인물과 진두로 파견된 인물을 정리한 것이다.

<표 2> 태조대 진두파견의 개관³³⁾

시기 ³⁴⁾	지역	연혁 ³⁵⁾	축성시기	축성책임자	鎭頭
11년02월	安北府	태조14안북부→성종2영주안북대도호부 →현종9안북대도호부	3년 11년/13년	大相 廉卿·能康	元尹 朴權
11년	通德鎭(肅州)	성종2 숙주방어사	11/18/22년		元尹 忠仁
12년 3월	安定鎭 ³⁶⁾	(성종2 자주방어사)	12년	大相 廉相	元尹 彦守 ³⁷⁾
12년 9월	安水鎭 ³⁸⁾	현종9 연주방어사	12년	大相 式廉	元尹 昕平
	興德鎭	성종2 은주방어사	12년		元尹 阿次城
13년 8월	馬山	현종9 연주방어사	13년	大相 廉相	正朝 昕幸
14년	剛德鎭(成州)	현종8 성주방어사	8년		元尹 平奂
17년	通海鎭	통해현	17년	大相 廉相	元甫 才萱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진두의 파견은 태조가 후삼국을 통일한 태조 19년 이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이후에는 전혀 그 모습을 찾을 수가 없다. 둘째, 진두가 파견된 지역은 대동강 이북에서 청천강 이남의 서북면 지역이며, 축성

33) 『고려사』 권82, 지36, 병2-진수.

34) 시기는 태조의 재위연도와 월을 표기한 것이다.

35) 『고려사』 권58, 지리3, 북계.

36) 안정진은 「지리지」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위치도 연혁도 알 수 없다. 보통 안정진은 安定驛에 비정되어 왔는데, 윤경진은 당시 진의 설치 분포에서나 축성시기의 문제점 등을 들어 안정진을 慈州에 비정하였다(윤경진, 앞의 논문, 262~264쪽). 진두를 파견할 만큼의 중요한 鎭이 이후 방어주로 승격되는 정황으로 볼 때 타당성이 있는 지적이라 생각한다. 또한 그의 주장처럼 서경-통덕진(숙주)-안북부를 잇는 중심축에 서경과 숙주 사이에 또 다른 진의 설치와 진두 파견이 불필요했다고 생각한다.

37) “太祖十二年 三月 遣大相廉相 城安定鎭 以元尹彦守考鎭之(『고려사』 권82, 병2, 鎭戊)”라고 하여 鎭頭라는 표현이 없지만 앞뒤 문맥상 진두로 파견된 것이 확실하다.

38) 윤경진은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안수진을 영천현에 비정하였다(윤경진, 앞의 논문, 257~258쪽). 「지리지」 朝陽鎭條에 ‘마산에 성을 쌓고 안수진이라 불렀다’는 기록에 따르면, 마산=안수진이며 현종 9년에 연주방어사가 된다. 태조의 북진 과정에서 진두 파견의 역할을 생각해 봤을 때 1년 사이에 같은 지역인 마산과 안수진으로 진두가 파견되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안수진에 파견된 元尹 昕平和 마산에 파견된 正朝 昕幸의 이름이 매우 유사하여 둘이 어떠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언급하겠다. 더구나 이 두 지역을 너무나 다른 곳으로 비정하는 것도 석연치 않다. 따라서 기존 견해였던 「지리지」 위치를 따르고자 한다.

이 함께 이루어졌다. 셋째, 축성 책임자의 관계는 대상(大相), 진두로 파견된 인물의 관계(官階)는 대체로 원윤(元尹)이다.

첫 번째, 진두의 파견시기에 대해 살펴보자. 진두는 태조대, 특히 발해가 멸망한 태조 9년(926)에서 후삼국을 통일한 태조 18년(935) 사이에 파견되는 경향을 보인다.³⁹⁾ 당시는 발해의 멸망으로 거란에 대한 경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었고⁴⁰⁾, 아직 통일을 완수하지 못한 혼란한 시기였기 때문에 해당 시기에 집중적으로 진두가 파견된 것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태조는 황폐화된 평양을 재정비하여 이곳을 중심으로 북방 개척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안정된 영토의 확보를 염두에 둔 계획이었다. 태조의 북계 巡行 기록을 보면, 거란족에 의해 발해가 멸망하는 926년 이전에는 북계나 邊郡을 순행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서경에 행차하여 그 주변 주진을 순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발해가 멸망한 상황에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거란과의 직접적인 접촉에 이미 안정되어 있던 서경을 중심으로 하여 주진을 대비케 하는 측면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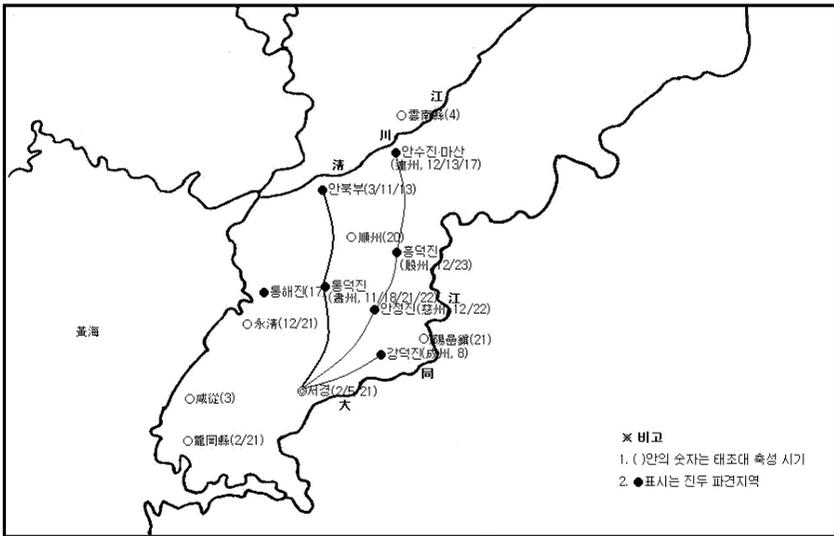
또한 진두의 파견도 태조의 북계 순행과 함께 이루어졌으며, 특히 진두의 파견시기와 해당 지역의 축성시기가 거의 동일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태조가 북계 순행을 통해 진두가 파견될 지역을 미리 선택한 후 축성과 함께 진두를 파견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곧 이 시기 태조가 북방 개척의 최종적인 전략이 바로 진두의 파견이었고, 그 과정은 巡行—(築城+)設鎮—鎮頭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완성되었다.⁴¹⁾

39) 여기서는 진두 파견시기의 전반적인 양상만을 설명하였으며, 각 지역의 진두 파견과 관련된 사항은 두 번째 파견지역에 대한 검토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40) 태조 9년(926) 2월 20일에 고려가 거란에 사신을 파견하였는데, 이때는 발해가 멸망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고려는 태조 5년(922)부터 거란에 수차례 사신을 파견하여 왔으며, 특히 이때의 사신 파견은 거란의 발해 정복을 축하하는 의미였다는 주장이 있어 설득력을 갖는다(한규철, 「후삼국시대 고려와 거란관계」, 『부산사학』1, 1985, 26쪽; 이정신, 앞의 논문, 2002, 60쪽). 그러면서도 태조는 같은 해 12월에 친히 서경을 행차하여 齋祭를 지내고 주변 州鎮을 순행하면서 북방개척의 의지를 다진다. 이는 고려가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41) 태조대에 축성된 지역 중 절반 정도에 진두가 파견되었으며, 통일 전 축성된 지역에는 국초에 축성된 용강·평양·함흥을 제외하고 전체에 진두가 파견되었다.

두 번째로 진두가 파견된 지역은 <그림>에서처럼 모두 청천강 이남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데⁴²⁾, 이 또한 앞서 제시하였듯이 태조의 북방 개척과 영토의 안정적인 확보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더불어 국경뿐만 아니라 서경을 중심으로 수도 개경을 방어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진두가 파견된 시기에 특히 서경 주변 주진에 대한 순행이 이루어진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진두의 파견은 기본적으로 축성을 전제로 하는데, 태조대 북방지역의 축성사례는 총 28건이며, 이 중 19건이 후삼국 통일(태조 19년) 이전에 축성되었다.⁴³⁾ 그런데 통일 이후 축성이 확인되는 9건의 사례 중 2건을 제외하고는 이미 이전에 축성된 사례가 있다. 따라서 후삼국



<그림> 태조대 축성 및 진두파견 지역

42) <그림>에서 청천강 상류 동쪽에 운남현(4)의 축성 지역과 시기를 표기하였다. 『고려사』 권82, 병2, 城堡條에 “(太祖) 四年 城雲南縣”이라 되어 있으나 태조대에는 청천강 너머까지 진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고려사』 「지리지」에 雲南郡은 성종 14년 撫州防禦使가 되는데, 撫州는 광종 2년에 축성되었다는 기록이 城堡條에 있다. 주변 주진의 축성도 정종이나 광종대이므로 무주의 축성을 광종 2년으로 볼 수 있겠다. 또한 광종 2년의 간지가辛亥이며 태조 4년이辛巳이므로 간지의 오독이 정보조에 기록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윤경진, 앞의 논문, 2010, 277쪽).

43) 최종석, 앞의 논문, 2007, 248~250쪽 <부표1>에서 計數.

통일 이전에 대동강과 청천강 사이 주요 지역에 축성이 상당히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구체적으로 태조대에 축성된 19사략 중 진두가 파견된 지역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지역일까. 이 문제의 해답에 접근하기 위해 몇 가지 가능한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먼저 군사적·지리적 요충지인가, 개경·서경과 안북부, 혹은 청천강 이북을 연결해 주는 주요 교통로인가, 축성 책임자나 진두와 관련이 있는 지역인가 하는 점이다.⁴⁴⁾

안북부는 진두 파견 지역 중에서 가장 빠른 축성과 진두 파견이 이루어진 곳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대로 대동강의 서경과 청천강의 안북부가 중심축이 되어 태조의 북진정책에서 밑그림에 해당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더구나 안북부는 태조 11년 진두 파견 2년 뒤인 14년에 도호부로 승격하면서 북방개척에 진전을 보였으니⁴⁵⁾ 잘 그려진 밑그림의 결과라 하겠다. 통덕진은 안북부와 같은 해에 진두가 파견된 지역으로 서경과 안북부 축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이로써 서경—통덕진—안북부의 중심축에 진두가 우선 파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⁴⁶⁾

다음 안정진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자주(慈州)에 비정할 수 있는데, 중심축에서 동쪽 방면으로 진두가 파견되는 시작점이다. 안수진은 「지리지」에 마산과 동일한 지역으로 비정되어 논란이 많지만, 이 지역을 같은 곳으로 볼 수 있겠다. 곧 안수진과 마산은 연주(連州)에 해당한다. 태조 12년 9월 안수진에 大相 식렴을 보내 성을 쌓고 元尹 혼행(昕平)을 진두로 삼았는데

44) 가능성으로 상정한 '축성 책임자나 진두와 관련이 있는 지역인가'에 대한 부분은 후술할 세 번째 검토 대상인 이들의 官階에 대한 논의에서 다루었다.

45) 안북부에 진두가 파견된 것으로 처음에는 이곳에 鑿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이후 鑿이 府로 승격된 것이다(윤경진, 앞의 논문, 2010, 260쪽).

46) 윤경진도 서경 북구 후 북쪽으로 진행된 축성 중 가장 빠른 사례인 안북부와 통덕진을 주목하면서, 서경에서 청천강에 이르는 북방 개척의 중심 축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였다(윤경진, 위의 논문, 2010, 262쪽). 그는 통덕진을 설치하고 안북부를 축성하였다고 하였는데, 태조 11년 2월 안북부에 축성하고 진두가 파견되었고 통덕진은 같은 해에 축성과 더불어 진두가 파견되었지만 월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통덕진에 축성과 진두파견이 1월이고 바로 다음 달에 안북부의 진두 파견이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덕진은 안북부보다 늦게 축성과 진두 파견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어떠한 이유에서 다시 13년 8월에 마산에 대상 염상을 보내 성을 쌓고 정조(正朝) 혼행(昕幸)으로 진두를 삼았다. 이는 처음 12년 축성 후 진두로 삼았던 昕平이 어떠한 이유로 면직되고 다시 일족인 昕幸이 진두를 맡게 되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⁴⁷⁾ 다시 13년에도 성을 쌓았다고 나오는 것은 진두 과건과 함께 축성하는 鎭戍條 기록에 맞춰 정리한 것이며 축성책임자를 염상으로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결과가 아닐까 생각한다. 1년 반정도 전에 안정진에 축성책임자로 같던 염상을 또다시 마산에 보낸 것처럼 기록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인 듯하다. 안수진(마산)과 같은 시기에 진두를 과건한 흥덕진은 殷州이며, 자주에서 동북쪽에 위치해 있다. 이를 통해 중심축의 동쪽 방면인 자주—은주—연주로 이어지는 주요 교통로에 진두가 과건된 것이다.

강덕진은 성주(成州)인데, 중심축의 동쪽 방면으로의 진두과건이 일단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서경 주변 지역에 진두를 과건한 것이다. 또한 <표 2>에서 보면 진두가 과건되는 시점과 축성시점이 일치하는 데에 반해 강덕진은 그렇지 않다. 곧 강덕진은 진두가 과건되는 시점보다 무려 4년이나 이른 태조 8년에 축성되었으니 특이한 이력이다. 서경 재성이 축조되는 6년 동안⁴⁸⁾ 축성사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유독 강덕진이 태조 8년에 축성된 이유는 단순하지만 강덕진(성주)이 중요했기 때문이겠다. 태조가 서경에 가서 친히 齋祭를 지내고 주변 주진을 순행한 경우가 딱 두 번 있는데, 한번은 서경 재성 축성이 완료되기 바로 전인 태조 9년(926) 12월이고 다른 한번은 강덕진에 진두가 과건된 해인 태조 14년 11월이다.⁴⁹⁾ 또한 현종 초에 거란이 침입하자 왕이 지채문에게 군사를 주어 서경을 원조하도록 명하였는데, 지채문이 강덕진에 머물렀다⁵⁰⁾고 하니 서경 방어를 위한 지역으

47) 『세종실록』 「지리지」에 「昕」氏가 한 건 확인되는데, 경상도, 안동대도호부, 예천군의 토성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설명하였다.

48) 『고려사』 권82, 병지2, 城堡, 태조 5년, “五年 始築西京在城〔在者方言畎也〕凡六年而畢.”

49) 『고려사』 태조 9년 12월 癸未 : 태조 14년 11월 辛亥.

50) 『고려사』 권94, 열전7, 智蔡文, “智蔡文鳳州人 顯宗元年補中郎將 王聞契丹兵至遣蔡文將兵鎭和州以備東北 及康兆敗兆及李鉉雲盧顛等皆被執 命蔡文移兵援西京 蔡文即與軍容使侍御史崔昌進次剛德鎭.”

로 강덕진이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던 것 같다.⁵¹⁾

이렇게 태조 11년에서 14년까지 매년 숨가쁘게 진두가 파견되었는데, 짧은 시기이지만 세 시기로 나눌 수 있겠다. 제1기는 태조 11년에 서경—통덕진(숙주)—안북부로 이어지는 중심축으로의 파견이고, 제2기는 태조 12~13년에 중심축의 동쪽 방면인 안정진(자주)—홍덕진(은주)—안수진·마산(연주)으로의 파견이며, 제3기는 태조 14년에 서경 방어를 위한 강덕진(성주)으로의 파견이다. 앞 장에서 지적한 것처럼 태조의 북방개척이 1차적으로는 수도 개경의 안정과 방어에 있었기 때문에 제1기에 파견된 진두는 파견 지역의 안정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임무를 담당하였을 것이다. 제2기에 파견된 진두는 중심축을 방어·엄호하는 동시에 이 지역이 최후의 보루로 혹은 최종 고려의 영토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영토를 확보하고 청천강 이북으로 진출하기 위해 필요한 임무를 담당하였을 것이다. 제3기에 파견된 진두는 제1·2기의 진두 파견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면서 서경의 이중 방어를 위해 필요한 임무를 담당하였을 것이다. 진두의 임무란 확보한 영역의 군사적 방어와 영역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민정적인 업무, 곧 북방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徙民, 역징발, 조세와 역의 부과나 면제 등의 일이다. 이제 중심축의 서쪽 방면으로의 진두파견이 이루어지면 그에 기대하는 효과가 최대가 될 것이었다. 그런데 이후 진두 파견은 통해진으로 마무리된다.

마지막 진두 파견지인 통해진은 서경과 연결되는 해안 지역들인 ‘용강-함종-영청-통해진-안음진’ 線에 포함되어 있으며, 서경-안북부 중심축 중간에 있는 통덕진(숙주)의 서쪽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태조는 진두의 파견을 시작하고 매년 한두 건의 파견을 진행하였던 데에 비해 중심축 동쪽 방면의 진두파견이 마무리 된 후에는 서쪽 방면으로의 진출에 잠시

51) 성주는 서경 방어를 위한 지역이면서 이후에는 동계와 연결되는 동서교통로 위에 위치하고 있었다(한정훈, 『고려 전기 兩界의 교통로와 운송권역』, 『한국사연구』 141, 2008, 140~141쪽). 당시 태조가 강덕진(성주)에 진두를 파견한 것이 동북 방면으로 진출할 것을 의중에 두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지역이 지리적인 요충지임은 분명하다.

주춤거렸다. 이는 열정적으로 진행하던 진두파견의 적신히였을까.

태조 14~17년 사이 고려의 상황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태조 15년 5월 태조가 群臣들에게 訓諭하면서 전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勞役으로 백성들이 쉴 수도 없고 供費의 부담도 많은 것에 대해 편치 않은 심정을 털어 놓지만, 역시 軍國을 위한 貢賦를 감면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⁵²⁾ 이전까지의 축성과 이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보급이 상당하였음을 의미한다. <표 1>을 보면 이 시기에 북계 순행은 있었으나 축성도 휴지 상태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같은 해 9월에 견훤이 예성강으로 침입해 들어와 개경을 위협하였고 태조 16년에는 후당으로부터 왕의 책봉을 받게 된다.⁵³⁾ 이러한 이유로 태조는 잠시 진두 파견을 미뤘고 이미 진두파견으로 얼마만큼의 기대한 효과를 얻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후 태조는 다시 중심축의 서쪽 방면인 통해진에 진두를 파견하였으나 다음 해에 후삼국을 통일하면서 통해진을 끝으로 더 이상 진두를 파견하지 않았다. 이는 태조의 북방 정책에서 진두의 역할이 수도의 방어와 전쟁의 패배나 통일국가를 수립하지 못할 경우 차선책으로 새로운 영역의 확보·관리에 있었던 것인데, 후삼국을 통일했으니 이에 대한 임무가 해제된 것이다. 통일 후 축성은 계속 이루어졌으나 진두를 파견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진두가 파견된 지역은 앞서 상정한 가능성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곧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이면서 개경과 서경을 연결하는 지리적인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혹시 북진할 경우에 청천강 이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주요 통로라는 측면에서 그러하다.

세 번째로 축성책임자와 진두의 관계(官階)에 대해 살펴보자. <표 2>를 보면 진두가 파견된 지역의 축성은 모두 대상(大相)이 담당하였고, 진두로

52) 『고려사』 권2, 태조2, 태조 15년 5월 甲申, “十五年 夏五月 甲申 諭群臣曰 頃完葺西京徙民實之冀憑地力平定三韓將都於此 …… 今四方勞役不息供費既多貢賦未省竊恐緣此以致天譴夙夜憂懼不敢違寧 軍國貢賦難以蠲免 尙慮群臣不行公道 使民怨咨或懷非分之心致此變異 各宜懷心毋及於禍.”

53) 『고려사』 권2, 태조2, 태조 15년 9월 및 태조 16년 3월 辛巳.

파견된 인물들은 원윤(元尹)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대상·원윤 등은 고려 건국 초기에 독자적인 관계인데, 성종 14년 중국의 관계를 도입하여 정식으로 채택한 문산계가 마련되기 이전에 사용되었던 관계이다. 고려초기의 관계는 9품계 16등급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⁵⁴⁾, 대상은 4품 7등급이고 원윤은 6품 10등급에 해당한다. 대상은 한눈에 보아도 상위 관계인 것이 확실하나 원윤은 전체 관계로 볼 때에는 중간 이하의 지위인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광종 11년에 마련된 백관의 공복 체계에서 자삼(紫衫)을 입을 수 있는 최상층을 '원윤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경종 원년에 제정된 시정 전시과에서도 자삼층, 곧 원윤 이상이 기준이 되었고, 성종 2년에도 문·무 원윤 이상에게 말 1필씩을 하사한 기록이 있다. 따라서 고려 초기 관계의 구조는 크게 원윤 이상과 좌윤 이하로 나누어져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⁵⁵⁾ 대상과 원윤 둘 다 상당한 위치의 관계임을 알 수 있다.

태조는 통일전쟁기였던 당시 관직이 아닌 관계만을 통해서도 공적 질서 체계를 수립하여 관계 수여자들을 통해 필요할 때마다 군사적 역할 등을 수행하도록 조치하였다. 관계를 수여받은 사람들은 대체로 고려에 귀부하거나 협조한 호족(성주·장군)으로⁵⁶⁾, 특히 원윤 이상은 강력한 호족이었다.

54) 다음은 고려 초기의 관계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박용운, 『고려시대 관계·관직 연구』, 1997, 35쪽 인용).

품계	관계명	등급	품계	관계명	등급
1품	三重大匡	1	5품	正甫	9
	重大匡	2		6품	元尹
2품	大匡	3	7품		佐尹
	正匡	4		正朝	12
3품	大丞	5	8품	正位	13
	佐丞	6		甫尹	14
4품	大相	7	9품	軍尹	15
	元甫	8		中尹	16

55) 박용운, 『고려시대 관계·관직 연구』, 1997, 33~37쪽.

56) 호족은 신라말에 새로운 사회세력으로 등장하여 지방사회에서 일정한 지역에 대한 정치적·경제적·군사적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던 독자적인 지방세력이며, 이들은 신라말과 고려초에 사회변동을 주도한 지배세력으로, 흔히 장군이나 성주로 대표되기도 한다(정청주, 『한국사』11, 국사편찬위원회, 1996, 63~67쪽).

또한 태조와 함께 고려를 건국한 개국공신들에게도 관계를 수여하였다. 태조는 중앙과 지방에서 이들에게 정치·군사·경제적 역할을 배분하여 지배해 나갔고, 특히 이러한 성격의 호족은 간혹 그 지역에 파견된 외관으로 간주되기도 하였다.⁵⁷⁾ 더구나 관계는 質子에게 수여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성주·장군은 직접 上京·來朝하였을 때에 받을 수 있었다. 곧 성주·장군이 귀부의 뜻으로 자신의 친속을 보내고 자신은 본거지에 남아 있다면 관계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⁵⁸⁾ 이런 의미에서 관계를 받은 자들은 이전의 독립적인 상황에 비해 고려 정부에 편입되어 관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⁵⁹⁾

태조는 관계를 수여한 자들을 여러 방면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진두 파견 때처럼 大相들을 보내어 축성을 책임지도록 하거나 元尹을 진두로 파견하는 경우가 동일 官階를 가진 사람들이 동일한 직임을 받은 다수 사례로 주목된다. 이외에도 국초에는 태조에게 귀부를 청해오는 성주들에게 이미 귀부하여 元尹의 관계를 받은 자를 파견하여 慰諭하기도 하였다.⁶⁰⁾ 그리고 大相을 파견하여 그들로 직접 백성들의 사민과 안집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며⁶¹⁾, 甫尹을 파견하여 신라왕에게 예물을 보내거나⁶²⁾ 大相을 당나

57) 김일우, 『고려초기 국가의 지방지배체제 연구』, 1998, 148~174쪽.

58) 윤경진, 「나말여초 성주의 존재양태와 고려의 대성주정책」, 『역사와 현실』40, 2001; 최중석, 「고려초기의 관계 수여 양상과 광종대 문산계 도입의 배경」, 『역사와 현실』67, 2008. 최중석은 위의 논문에서 고려초 성주·장군이 관계를 수여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전제조건들을 제시하면서 귀부한 성주·장군 모두에게 관계가 수여된 것이 아니며, 중앙 관인조차도 관계를 소지하지 않았던 경우가 있었음을 검토하였다. 따라서 관계를 통해 해당 지역의 통치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견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관계는 '중앙세력의 導管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역시 관계는 수여 대상자의 기득권을 존중하는 의미가 있으며, 이를 세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수여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고려에 귀부·협조한 호족들 모두에게 관계가 수여된 것은 아니지만, 관계를 받은 자들은 고려 정부의 승인과 예측을 동시에 받았을 것이 확실하다.

59) 大匡·大相 등 고위 관계를 받은 사람들 중 이후에 宰臣이 되는 사례가 많다(김일우, 앞의 책, 1998, 65쪽 <표 2>).

60) 『고려사』 권1, 태조 5년 11월 辛巳, “冬十一月 辛巳 眞寶城主洪術遣使請降 遣元尹王儒卿含弼等慰諭之.”: 같은 책, 권92, 열전5, 王儒傳.

61) 『고려사절요』 권1, 태조 2년 8월, “改烏山城爲禮山縣 遣大相哀宣洪儒 安集流民五百餘戶.”

62) 『고려사』 권2, 태조 14년 8월 癸丑, “秋八月 癸丑 遣甫尹善規等 遣羅王鞍馬綾羅綵錦并賜百官綵帛軍民茶幘頭僧尼茶香有差.”

라에 보내 方物을 바치는 등의 사신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⁶³⁾ 또한 元尹·正朝 등이 통일전쟁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⁶⁴⁾, 태조 19년 일리천 전투에는 다양한 관계를 지닌 중앙 관인들이 대거 전쟁에 참여하였다. 태조는 고려에 귀부·협조한 자들에게 관계를 수여하기도 하였지만, 관계를 받은 자들을 파견하여 고려가 필요로 하는 일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축성책임자와 진두로 파견된 인물들은 강력한 호족이나 그의 친속으로, 이들은 태조에게 귀부의사를 밝히고 직접 上京·來朝하여 고위 관계를 받아 고려의 관리 대상이 된 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진두는 고려에 의해 관계를 수여받고 북방개척의 주요한 지역들인 鎭에 파견되어 鎭戍의 역할과 함께 민사행정적인 사무도 관장하였을 것이다. 이들은 이후의 파견되는 고려의 외관이 일반적으로 중앙의 관직을 갖고 일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각 지역에 파견되는 것과 같은 형태이다. 따라서 이들을 양계 지역에 파견된 외관의 시초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다.⁶⁵⁾

앞서 진두와 파견 지역의 관련성에 대한 의문으로 축성 책임자와 진두는 파견된 지역과 어떠한 관련이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당연하지만 해당 지역은 태조가 북진에 의해 개척한 지역이므로 이들의 출신지이거나 본관일리는 전혀 없다. 대신 이들이 해당 지역에 파견되어 사민을 진행하면서 거주지가 옮겨져 이적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축성책임자로 파견된 大相들은 동일 인물이 다른 지역에 파견되었기 때문에 해당 지역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⁶⁶⁾ 진두들은 大相과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어

63) 『고려사』 권2, 태조 15년, “是歲 遣大相王仲儒 如唐獻方物.”

64) 『고려사』 권92, 朴守卿傳, “事太祖爲元尹 百濟數侵新羅 太祖命守卿爲將軍往鎭之 值甄萱再至守卿輒以奇計敗之 曹物郡之戰 太祖部分三軍以大相帝弓爲上軍元尹王忠爲中軍守卿股率爲下軍 及戰上軍中軍失利 守卿等獨戰勝.”; 같은 책, 권1, 태조 11년 정월 乙亥, “乙亥 元尹金相正朝直良等 將往救康州經草八城 爲城主興宗所敗金相死之.”

65) 태조대 북방지역은 크게 북계·동계의 양계로 정리되고 각 지역들이 도호부-방어주진-진(현)의 계서적인 관계로 편제되면서 각각 도호부사-방어사-진사(진장)·현령 등의 수령이 파견된다.

66) 축성책임자 중 염상과 왕식렴만이 확인되는데, 염상은 개국공신 2등이며 태조 26년에는 宰臣으로 나타나 있고 왕식렴은 태조의 堂弟로 태조 원년에 서경에 대도호부를 설치하는 데에 참여하였고 이후 大匡까지 오른 인물이다(『고려사』 해당연도 기사 참고).

는 한 사람도 진두倂呑 이외의 기사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진두가 倂呑된 지역의 성씨조를 확인해 보니 모두 入鎭姓만이 확인된다. 이 지역에는 土姓이 없이 이주하여 온 성씨만이 있고 이들에게는 해당 지역이 본관이 되는 것이다. 진두로 倂呑된 인물들을 입진성에서 확인해봤으나 안북부에 倂呑된 박권(朴權)을 제외하고는 나타나는 성씨가 없다. 양계로 사민된 자들은 자신이 원할 때 일정한 절차를 거쳐 移籍이 이루어지고 그 후에야 입진성에 오르게 되며, 반대로 이적하지 않으면 거주하고 있더라도 성씨조에는 없을 수 있다.⁶⁷⁾ 따라서 북계 鎭으로 倂呑된 진두들은 그곳에 거주하였지만 이적하지 않아 입진성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한 사례뿐이지만 진두 중 관할 지역에 거주하다가 아주 이적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⁶⁸⁾ 진두가 倂呑된 지역은 태조대 새롭게 확보된 지역이기 때문에 진두와 연고 있는 곳은 아니다. 그러나 진두가 徙民을 관리하고 안정시키면서 자신들도 이곳에 터전을 잡아 대대로 살았을 가능성도 있다.

67) 박은경, 「고려시대 사민연구」, 『인하사학』6, 1998, 48~60쪽.

68) 안북부의 진두인 朴權은 倂呑되었던 지역인 안주목(安州牧)에 입진성으로 박(朴)(교동(交同))이 올라있다. 다른 진두의 忠·彥·昕·阿·平·才를 모두 성씨로 보았을 때, 그들이 倂呑된 해당 지역에서는 찾아지지 않으니 당시 진두로 倂呑되어 거주하였더라도 이적을 하여 본관으로 삼지는 않은 듯하다. 그래서 『세지』 성씨조에서 진두인 위의 성씨들을 찾아보니 '평'씨와 '훈'씨가 하나씩 확인되었다. '평'씨는 전라도, 나주목, 해진군(海珍郡)에 가흥(嘉興)의 성씨로, '훈'씨는 경상도, 안동대도호부, 예천군(醴泉郡)의 토성으로 찾아진다. '훈'씨는 해당 기사에 세주에 "權本昕氏 神宗元年 避明宗舊諱 改賜權."라고 되어 있어 昕氏가 신종 원년에 권씨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곧 원운 평환과 원운 훈평·정조 훈행은 각각 전라도와 경상도 출신이며, 태조의 명을 받아 진두로 倂呑되었으나 이적하지 않아 자신의 본거지에 그대로 남아 『세지』에 올라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네 명의 진두들은 이름 첫 자가 성씨가 아닐 경우와 새로운 성씨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다른 네 명의 경우가 성씨로 판단되어 가능성이 희박하며 후자의 경우가 가능하겠다. 그러나 이들의 성씨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금으로서는 전혀 알 수 없어 추적이 불가능하다.

4. 맺음말

태조는 고려를 건국한 후 나라의 기틀을 잡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해 나갔다. 태조는 직접 북계를 순행하는 일이 잦았는데, 이는 이 지역에 대한 태조의 관심과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특히, 그는 새롭게 확장된 영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방어하기 위해 재위 기간 내내 꾸준히 성을 쌓고 진을 설치하였으며, 진이 설치된 곳 일부에 진두를 파견하였다. 태조의 북방개척은 서경을 거점으로 하여 진행되었는데, 국초부터 비교적 빠른 축성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이 대동강 이북에서 청천강 이남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나마 북계로의 순행은 통일을 이룬 후에도 전혀 보이지 않으며, 축성은 계속 진행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이미 완성된 성을 수리하거나 보수하는 정도였다. 태조는 후삼국을 통일한 이후 북방개척도 마무리한 것인데, 태조에게 북방정책은 북진으로의 영토 확장이 아니었던 것이다.

태조는 국초부터 수도를 정비하고 동시에 서경을 거점으로 삼아 수도 개경을 방어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였다. 서경과 안북부를 중심으로 성을 쌓고 그 주변에도 연달아 축성과 진의 설치를 단행하였다. 이와 동시에 그는 후백제와의 전쟁에서, 최종적으로는 통일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북방지역을 최후의 보루로 여기고 고려의 영토와 백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태조는 백성을 새롭게 개척한 지역으로 옮겨 이들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였고, 이는 또다시 북방개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보급과 연결된다. 고려는 북방개척을 위한 일련의 일들을 담당할 외관 파견이 절실하였는데, 이를 진두를 파견하여 해결한 것이다. 곧 진두는 확보한 영역의 군사적 방어와 영역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민정적인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였다. 진두는 백성들을 새로운 영토로 옮기고 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축성에 필요한 역을 징발하고 조세의 부과나 면제 등의 일도 맡았을 것이다. 그런데 후삼국을 통일한 이후

에는 북방개척의 필요성이 감소하면서 더 이상의 북계 순행이나 진두파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북방개척을 위해 파견된 진두는 파견된 시기와 지역, 파견 인물 등에서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진두는 발해가 멸망한 태조 9년(926)에서 후삼국 통일이 이루어진 태조 18년(935) 사이에 집중적으로 파견되었다. 이는 앞서 설명한 북방개척의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이를 위해 태조의 북방개척 과정은 북계 순행—(축성+)설진—진두파견이라는 연결고리를 갖고 진행되었다. 진두의 파견지역은 모두 청천강 이남에 한정되어 있는데, 이 또한 영토의 안정적인 확보의 일환이었기 때문이다. 진두가 파견된 지역은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이면서 개경과 서경을 연결하는 지리적인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혹시 북진할 경우 청천강 이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주요 통로이다. 구체적으로 서경—통덕진(숙주)—안북부로 이어지는 중심축은 수도 개경의 방어를 위해 서경을 거점으로 하여 형성된 지역이다. 안정진(자주)—홍덕진(은주)—안수진·마산(연주)은 서경과 안북부의 중심축을 방어하면서 새로운 영토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다. 중심축 동쪽 방면의 마지막 진두 파견지인 강덕진(성주)은 다시 개경과 서경을 이중으로 방어하는 지역이다. 진두로 파견된 인물들의 관계는 원윤인데, 이들은 당시 강력한 호족이나 그의 친속으로 태조에게 귀부·협조하여 관계를 받았고 고려는 관계를 통해 이들을 파악하고 관리하였다. 태조는 관계를 받은 자들을 북방지역에 파견하여 진두로 삼고, 그들에게 해당 지역의 군사적 방어와 더불어 사민된 백성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시한 것이다. 따라서 진두는 양계지역에 파견된 외관의 시초라고 평가할 수 있다.

(원고투고일 : 2011. 4. 1, 심사수정일 : 2011. 4. 21, 게재확정일 : 2011. 4. 29.)

주제어 : 태조 왕건, 북진, 북방개척, 북방정책, 양계(兩界), 진두(鎭頭), 축성(築城), 설진(設鎭), 북계순행, 사민(徙民)

<ABSTRACT>

The expansion to northern region and the dispatch of *Jindu* during the reigns King *Taejo* in *Goryeo* Dynasty.

Yi, Jung-ki

In this article, I studied *Jindu*(鎭頭) that dispatched for the going-north policy of King *Taejo* and stable performance of the process. It accessed truth of *Jindu* through analysis about dispatched time, region, character. After establish the *Goryeo* Dynasty, King *Taejo* suggested various policy for set up the foundation of a nation. He built a castle for systematical management at new domain, next he moved the people to the new domain and made an effort for stabile settlement. Also King *Taejo* decided the capital, after defended the capital *Gaekyeong*(開京) through base of defense *Seokyeong*(西京). It built a castle at *Seokyeong* and *Anbukbu*(安北府), build a castle and install a camp on a fringe of the axis. At the same time, he regarded northern region as the last bastion at the war with *Hubaekje*(後百濟) so he tried for secure territory and the people. The people became material resources and human resources for the expansion to northern region. *Jindu* took charge of a series of works for the expansion to northern region, that is defense of the military and stable management of the new domain.

We can understand feature of *Jindu* through dispatched time, region, character. The *Jindu* was intensively sent to defense at between the King *Taejo*'s own reign year of 9 to 18. The *Balhae*(渤海) was destroyed in 926, the King *Taejo*'s own reign 9 year and the *Goryeo* Dynasty unified Later Three Kingdoms in 935, the King *Taejo*'s own reign 18 year. It is immediately related to goal of expansion to northern region. In other words,

the going-north policy of King *Taejo* advanced by coupling device that 1'st royal tour, 2nd build a castle and install a camp, 3rd dispatch *Jindu*. The dispatched of *Jindu* was limited to south of the *Cheongcheon* River, it also was a part of stable management of the new domain. There was an army base, not only connected between *Gaekyeong* and Seokyeong but also expanded into north of the *Cheongcheon* River. The *Jindu* was generally dispatched to *Wonyoon*(元尹), government official *Gwangye*(官階). They was a powerful clan or their relative, the King *Taejo* was conferred on them who surrendered or cooperated to the *Goryeo* Dynasty. The King *Taejo* ordered for defense of the military and stable management of the new domain to *Jindu*. As a result, the *Jindu* was the beginning of the local government official dispatched to *Yanggye*(兩界) area.

Key Words : King *Taejo*, Going-north, *Jindu*(鎭頭), Royal Tour, Building a Castle, Installation a Camp, the Expansion to Northern Region, Moving the People to the New Domain, *Yanggye*(兩界)